

## 재외홍보관 간담회

민주적, 분권적 리더십을 만들어가겠습니다

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그리고 해외에서 수고가 많습니다. 아무래도 국내보다 힘이 많이 드실 겁니다. 좀 마음이 쓰이는 것은 지금 한국 정부,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잘 이해 안 되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. 그런 걱정이 있지만 잘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.

말할 기회가 인사와 맺음말 두 번이 있습니다. 인사말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여러분이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입니다.

항상 하는 얘기는 홈페이지 이런데 올라와 있습니다. 시간이 없고 귀찮더라도 봐 주십시오.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짐작할 것입니다.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해 나가야 하지만, 총리에게 좀 더 맡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. 후보시절부터 아직까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그러나 아직은 어디까지 넘기고 어떤 것을 할 것인지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.

대통령으로서 그 시대의 문제를 제도와 문화에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. 지금 국내에서는 리더십의 위기, 리더십의 변환기에 와 있습니다. 전임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이른바 인사권인 공천권을 가지고 완전히 장악하고, 통치해왔습니다. 그야말로 통치였습니다.

지난 선거에서 어떤 후보도 권력을 줄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.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 당 총재도 아니고 당 공천권도 없습니다. 당의 기반이 국민의 계층 간 이해의 토대 위에 있기보다 정서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 어느 쪽 정책을 가지고 타협하기 어렵습니다. 민주적, 분권적 리더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